

Perception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Documents with Easy-to-read Design Elements

Jiyoung Son(Daejeon University)

Younghee Cho[†](Seoul National University)

Hyejung Koh(Uid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documents designed to be easy to read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draw improvements in the application of easy-to-read design. In this study, the existing documents were modified by applying easy-to-read design elements, a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on the merits of easy-to-read documents and the needs of improvement for thre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esented the advantages of documents with easy-to-read design elements, such as increased legibility of documents, easier understanding of content, and improved confidence in reading. Next, as the needs of improvement, correction of vocabulary composed of Chinese characters and foreign words, correction of sentence length, and illustration expression suitable for age were suggest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easy-to-read documents were suggested.

Key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ies, easy-to-read document, perceptions

[†]Correspondence : Cho, Young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lalj@snu.ac.kr

읽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문서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인식†

손 지 영(대전대학교, 교수)

조 영 희††(서울대학교, 연구원)

고 혜 정(위덕대학교, 교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디자인한 문서에 대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읽기 쉬운 디자인 적용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읽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기존의 문서를 수정하였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3인에게 읽기 쉬운 문서의 장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들은 읽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문서의 장점에 대해 문서의 가독성 증가, 내용 이해의 용이, 읽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대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한자어와 외래어로 이루어진 어휘의 수정, 문장 길이의 수정, 생활연령에 적합한 삽화 표현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문서 제작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발달장애, 읽기 쉬운 문서, 인식

† 이 연구는 2018년도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음

†† 교신저자: 조영희, 서울대학교, helal@snu.ac.kr

■ 투고일: 2021. 12. 05, 수정본 접수일: 2021. 12. 10, 게재 승인일: 2021. 12. 15.

I. 서론

읽기 쉬운 문서(easy-to-read materials)란, 글을 읽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서, 다양한 수준의 문자 해독과 구문의 이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문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대체자료이다(손지영, 조영희, 고혜정, 2019).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읽기 쉬운 자료를 대체도서로 활발하게 개발하고 이를 위해 'Swedish Centre for Easy-to-read'를 설립하여 꾸준히 대체도서를 개발하고 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유럽 도서관에서는 읽기문제를 가진 독서장애인(난독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 실어증, 치매, 읽기부진 등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대체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12).

한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장애인 분과에서는 2005년에 '읽기 쉬운 자료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asy-to-read materials)'을 개발하여 적절한 읽기능력을 갖지 못한 아동 및 성인이 쉽게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을 지침으로 제시해주고 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국내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2013)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easy-to-read book) 개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해외의 지침을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하고 발달장애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쉬운 책 개발 지침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지침을 적용하여 아동용 도서와 청소년용 도서를 각각 한 편씩 제작하였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그리고 2015년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국제적 조직인 국가평등파트너십(The national Equality Partnership)과 영국의 지적장애인 인권단체 CHANGE가 제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서 만들기 안내서'를 번역하고 우리나라 언어 특성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읽기 쉬운 문서 안내서'를 개발했다(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015, 2017). 2018년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를 개소하였고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8).

문해력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문서로 공유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정보로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손지영, 조영희, 고혜정, 2021).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활자와 관련된 매체나 자료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러한 자료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거나 활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송준만 외,

2012; 신종호 외, 2008).

문해력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문서로 공유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정보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문해력 수준을 고려한 대체자료 개발이 필요하다(손지영, 조영희, 고혜정, 2019). 발달장애인 등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국가 정책과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자료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정책 및 다양한 자료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읽기 쉬운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손지영, 조영희, 고혜정,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읽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문서에 대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읽기 쉬운 정도와 디자인 적용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문서 디자인과 자료 제작에 대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문서에 대해 발달장애인들이 인식하는 장점은 무엇인가?

둘째, 읽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문서를 제작했을 때, 발달장애인들이 인식하는 개선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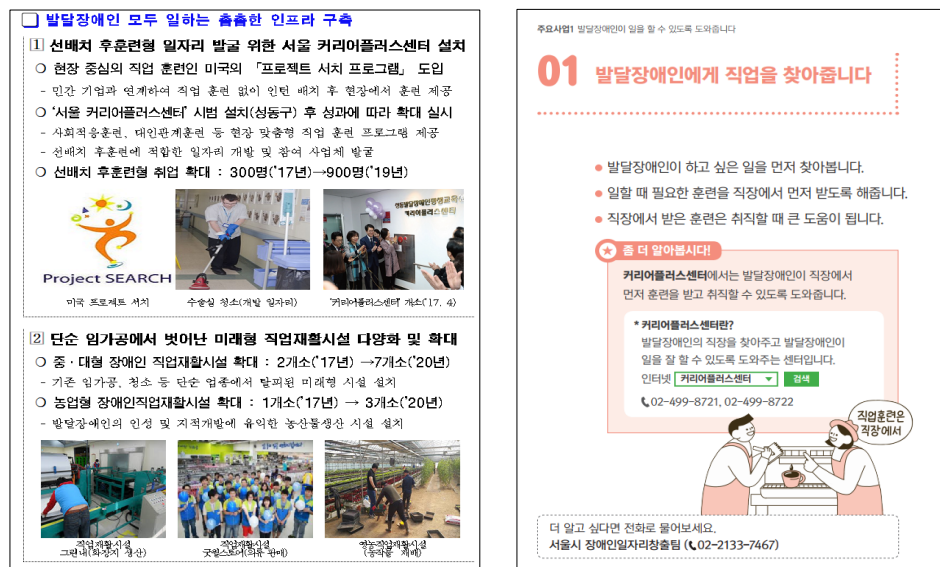
1. 읽기 쉬운 자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출된 읽기 쉬운 문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읽기 쉬운 문서를 제작하였다. 기존의 서울시 정책 자료 중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자료로서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을 선정하여 읽기 쉬운 문서로 수정 작업하였다.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울,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서울,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이라는 3개 부분의 과제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제마다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기존의 발달장애인 기본 계획 문서(좌)에 읽기 쉬운 문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수정된 읽기 쉬운 문서(우)를 제작했다. 이러한 읽기 쉬운 자료는 연구진과 그래픽 디자이너의 협의를 통해서 다음의 <표 1>과 같이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1] 기존의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왼쪽)과 읽기 쉽게 제작한 문서(오른쪽)

<표 1> 읽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기존의 문서를 수정한 내용

구분	읽기 쉬운 디자인 적용 내용
내용 구성	- 가장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을 포함하였고 나머지 정보들은 삭제하였다. - 기존의 자료에서는 제목과 부제목이 제시하지 않았으나, 각 페이지마다 제목과 부제목이 눈에 보이도록 제시하였다. - 기존의 자료에서는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었는데, 한 페이지 안에는 서로 관련된 정보만 간단하게 제시하도록 수정하였다. 관련된 정보들은 함께 묶고 단락을 비교적 짧게 구성하였다. -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삽화를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삽입하였다.
어휘 및 문장	- 전문용어(정책 및 서비스 관련 용어)는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사용해야 하는 어휘이므로, 그대로 본문에 제시하고 글상자를 만들어서 쉬운 어휘로 풀어 설명했다. - 전문용어들에 대한 용어 해설을 첫 페이지에 미리 제시하였다.

문서 디자인	- 기존의 자료에서 문장은 행동의 주체가 적절히 드러나지 않는 개조식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행동의 주체를 드러나게 능동형으로 수정하고 동사형으로 문장을 수정하였다.
	- 기존의 자료에서는 텍스트를 양쪽 정렬로 되어있었는데, 텍스트를 왼쪽 정렬로 변경하고 한 문장을 두 줄로 쓸 때 읽을 때 멈춰야 하는 부분으로 문장을 나누었다.
	- 기존의 자료에서는 한 페이지 안에 여백이 부족하여 가독성이 낮았다. 수정된 자료에서는 시각적인 안정감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 페이지 내에 제시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고 여백을 충분하게 확보하였다.
	- 텍스트의 내용이 많아서, 전체문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컬러 색인을 사용하였다.
	- 삽화나 텍스트, 글상자 등에서 너무 많은 색상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각 장마다 컬러 색인 색상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2. 발달장애인 대상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 제작한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검토를 받기 위해서 3명의 발달장애인을 관련 기관에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이들은 읽기 쉬운 자료를 보고 읽기 쉬운 정도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 2>와 같이 평가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모두 20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현재 지역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표 2>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인적사항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직장
발달장애인1	여	23세	고졸	장애관련단체
발달장애인2	남	29세	전문대졸	장애인교육센터
발달장애인3	여	28세	고졸	푸드마켓

발달장애인 당사자 3명과는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여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장점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읽기 쉬운 자료에 관한 배경 정보를 충분히 설명한 후, 발달장애인들이 읽기 쉬운 자료(5페이지 주요 페이지)를 함께 읽고 나서 얼마나 내용 이해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연구자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의 주의집중시간을 고려하여 45분 면담을 하고 중간에 휴식시간을 15분 정도 가졌으며, 총 1시간 30분 동안 읽기 쉬운 자료를 보면서 면담을 실시했다

Ⅲ. 연구결과

1. 읽기 쉬운 자료의 장점에 대한 인식

발달장애인들이 인식하는 읽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문서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문서의 가독성 증가, 내용 이해의 용이, 읽기에 대한 자존감 향상이 제시되었다.

1) 문서의 가독성 증가

면담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기존의 ‘서울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과 읽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수정된 문서를 비교해보면서 문서를 알아보기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문서는 우선 정보가 너무 많이 제시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읽기 쉽게 수정된 문서는 중요한 정보만 눈에 잘 보이게 제시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쉽다고 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사진이 제시되어 있어서 더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내용을 설명하는 삽화로 추가하니 문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존의 문서에서는 내용이 너무 뻑뻑하고 여백이 부족하였는데 읽기 쉬운 자료에서는 여백을 많이 두고 중요한 정보가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배치해서 좋았다고 언급했다.

2) 내용 이해의 용이

기존의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문서에서는 제시된 문장은 길이가 짧았으나 함축적 용어를 사용해 개조식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수정된 읽기 쉬운 자료에서는 개조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변경하면서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짧고 간단하게 제시해서 내용 이해가 쉬웠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커리어플러스센터’와 같은 고유명사의 경우, 이러한 용어를 알아야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시하면서 별도로 쉬운 설명을 제공해주어서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3) 읽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

면담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기존의 ‘서울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문서를 볼 때는 내용 이해가 어렵고 전문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문서에 대해 스스로 위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롭게 수정된 읽기 쉬운 문서를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문서들로 인해 사회에서 위축되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었는데, 이러한 읽기 쉬운 문서들이 주변에 많으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에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2. 읽기 쉬운 자료의 개선점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읽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문서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한자어와 외래어로 이루어진 어휘의 수정, 문장 길이의 수정, 생활언령에 적합한 삽화 표현이 제시되었다.

1) 한자어와 외래어로 이루어진 어휘의 수정

본 연구에서는 전문용어나 어려운 어휘들을 쉬운 말로 풀어서 읽기 쉽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면담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재활, 관리, 규모 등과 같은 한자어와 코치, 서비스 센터 등과 같은 외래어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은 문장 속에서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면담내용을 토대로 볼 때,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발달장애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문장 길이의 수정

면담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문장 길이가 더 짧게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존의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보다 수정된 문서에서는 소제목과 내용이 모두 한 줄 또는 두 줄로 짧게 구성되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이것보다 문장이 더 짧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제목을 가능하면 짧게 하고 본문에 제시된 담

당 부서나 연락처를 제시할 때에도 짧게 제시하는 것이 내용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3) 생활연령에 적합한 삽화 표현

본 연구에서 면담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삽화에서 장애인을 표현할 때에 어린이 이처럼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서의 대상이 되는 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인데, 삽화를 보면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어린이 다루듯이 행동하거나 보호하거나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면담내용을 볼 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시 삽화에서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 유발이나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와 같은 편견을 가지게 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서의 독자가 되는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연령에 적합하게 삽화에서 표현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디자인한 읽기 쉬운 문서에 대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읽기 쉬운 디자인의 장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도출된 읽기 쉬운 문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기존의 문서를 수정하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는 것에 활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문서자료들을 읽기 쉽게 수정하여 제공한다면, 발달장애인도 일상생활에서 정보소외를 경험하지 않고 비장애인이 누리는 문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손지영, 조영희, 고혜정, 2021).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은 정보에 접근하거나 학습,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데, 이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활자와 관련된 매체나 자료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러한 자료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거나 활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송준만 외, 2012; 신종호 외, 2008).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이 읽기 쉬운 문서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손지영, 조영희, 고혜정, 2021).

앞으로 다양한 공공문서들을 읽기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손지영, 조영희, 고혜정, 2019).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부족은 장애인들의 정보소외를 낳고 사회적으로 자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이영숙, 2007).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의 개발은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보급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3인을 대상으로 면담 형식으로 인식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더 많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읽기 쉬운 자료의 효과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상황에 대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읽기 쉬운 자료 제작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달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요구를 분석하여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개선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을 지적능력, 문해력 수준, 교육 및 사회경험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다양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고 다양한 유형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후속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장애인도서관 (2012).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해외사례조사 및 국내 적용모델 개발. 국립장애인도서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발달장애인용 쉬운 책 개발. 국립장애인도서관.
- 송준만, 강경숙, 김미선, 김은주, 김정호, 김현진, 이경순, 이금진, 이정은, 정귀순 (2012). 지적장애아교육. 학지사.
- 손지영, 조영희, 고혜정 (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특수교육, 18(1), 25-25.
- 손지영, 조영희, 고혜정 (2021).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문서 디자인의 이론적 탐색. 유니버설디자인연구, 1(1), 1-17.
- 신종호, 김동일, 신현기, 이대식(역) (2008). 정신지체(7판). 시그마프레스.
- 이영숙 (2007). 장애인정보격차에 관한 소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69-91.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8).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연구보고서.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2015). 발달장애인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만들기 - 읽기 쉬운 문서 만들기 안내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2017). 발달장애인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만들기 - 읽기 쉬운 문서 만들기 안내서(개정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